

'89년도 종계입식 현황분석

강재명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 과장

씨 앓의 과다에 의해 생산량이 좌우되고 또한 가격의 등락으로 희비가 엇갈림은 농축산물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다.

특히 생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병아리는 종계에 의해 생산되어 가격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다.

90년도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89년도 종계의 입추수수를 파악·분석함으로써 향후 가격전망 및 경영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종계의 입식패턴은 그 해의 경기상황, 질병발생정도, 신규업자의 출현 등 연도별, 세대별 차이는 조금씩 있으면서도 특징을 보일 때가 많다. 89년도 입식의 특

징은 육용 GPS 종계의 수입물량 급증과 산란 PS 종계에 있어서 갈색계쪽의 입추수수 증가가 두드러졌고 육용 PS 종계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량이 크게 부족현상을 보여 앞으로 계란·육계가격의 변화를 예고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결과를 보고 호·불황의 숙명적 만남이 아닌가 여겨지며 90년도에 계속될 때 불황의 전주곡은 벌써 울려졌다고 볼 수 있다.

PL, GPS, PS 입식수수가 어느 정도일 때 적정한 물량인가의 기준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소비량의 파악 또한 불가능하며 외부의 영향에 따라 신속적으로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가 변하기

때문에 과잉입추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수입개방 자유화시대를 앞두고 PS와 GPS의 적정규모 유지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계입추를 너무 제한하면 가격폭등으로 수입개방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증가시키면 산물시세의 폭락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전업계가 관심을 갖고 자율적인 적정수수 유지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원종계(G.P.S)

원종계(G.P.S)를 입식하는 것은 종계(P.S)를 생산키 위한 것

으로 곧바로 실용계(CC) 생산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본적
인 과잉시 산물시세에도 큰 영향
을 줄 것으로 본다. 산란계보다는
육용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89년도 경향을 보면 산·육
용 구분없이 어느해보다 많은 수
수의 입식이 되었다.

산란 GPS는 PS, CC의 입
식이 계절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므
로 PS 생산을 연중하지 않은 관
계로 GPS의 과다로 인한 피해
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실용산란 병아리의 부족
현상을 빚을 때 의외의 수수입식
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생산잠재력
이 높을 때는 항상 불안요인을 내
포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후 GPS 수수는 우우라인 가
준임).

산란 GPS 입식수수를 보면
6,800수로 87년과 비슷한 수준으
로 88년은 난가불황과 겹쳐 PS
입식열이 바닥세를 보여 생산잠재
력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그쳤
으나 90년도는 88년과 상당한 여
건변화를 보일 것으로 입식 또한
같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자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

육용 GPS는 예년에 비해 50
%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여 향후

PS의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85
년까지 20,000수대에서 유지하였
으나 86년 및 87년 상반기까지의
병아리값 호황으로 인해 86년부터
40,000수대를 유지하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87년 하반기부터 병아리
생산 과잉으로 병아리값이 100원
대를 형성하는 불황의 초기 단계
에 이르러 1년여의 장기불황 끝에
중계의 인위적인 생산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GPS의 생산성은 잠재력의 절반
도 못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87년은 2/4분기 21,000수, 3/4분
기 6,000수, 4/4분기 36,200수 합계
63,200수를 수입하였고 품종 또한
7종으로 신규로 2개종이 처음 들

어왔고 금년에도 더 추가될 것으
로 육계품종의 춘추전국시대를 맞
는 기분이다.

최근 중계의 생산성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되고 닭고기 소비가
크게 신장된 점으로 미루어 10~
20% 정도의 증가는 큰 문제가 되
지 않겠으나 40~50% 증가는 향
후 문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91년도 복병아리 생산을
대비해 89년 4/4분기에 집중적으
로 수입된 것도 병아리 수요철에
더욱 과잉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계(PS)

중계(PS)의 입식 패턴에 있어



최근 육용중계의 생산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닭고기 소비가 크게 신장된
점으로 미루어 10~20% 정도의 증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40~50%
증가는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 연도별 육용종계 입식현황(우기준)

연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5	74,920	104,200	145,900	152,080	186,300	148,300	138,350	156,800	120,200	159,600	79,000	60,100	1,525,750
86	77,700	157,600	152,760	120,800	144,600	122,600	221,450	149,900	194,300	175,800	99,840	89,300	1,706,650
87	107,500	160,300	195,000	222,100	240,250	202,300	280,726	269,150	239,920	205,360	103,530	126,508	2,352,654
88	131,500	177,891	297,766	267,400	198,910	232,000	297,510	198,250	240,572	210,762	111,278	108,518	2,472,357
89	85,586	201,500	278,935	235,998	222,005	190,080	259,769	281,572	246,765	227,100	209,250	184,434	2,622,794

* 연도별 육용종계 입식현황(우기준)

연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5	24,160	30,590	21,700	33,900	35,700	39,110	37,530	3,692	3,120	44,000	44,660	121,260	439,422
86	20,200	26,300	18,040	8,900	24,800	56,424	55,100	21,760	29,600	45,150	37,300	90,630	434,204
87	28,175	29,255	19,160	23,350	65,660	82,500	43,580	35,100	4,500	15,000	49,900	53,137	449,317
88	51,988	26,000	16,077	27,920	65,624	30,725	8,325	42,034	2,885	23,952	49,372	55,580	400,482
89	84,937	40,147	23,475	41,646	56,067	28,400	24,025	14,750	67,450	45,300	40,550	33,201	499,948

* 연도별 산란종계 수입현황(우기준)

연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5	6,400	9,690	7,500		29,000	6,000	5,300	492	3,120	15,000	5,000	68,280	155,782
									3,600		10,100	44,530	169,614
										5,000	11,950	12,600	125,910
												4,680	68,004
									1,100	4,200			152,525

입식으로 구분된다.

종계의 입식은 그해 아니면 익년도의 산물시세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채란농가나 육계농가에 많은 관심을 주게 된다. 89년도는 산란, 육계 모두 전년도에 비해 25%, 6%의 증가로 산란종

신규채란농가의 수요 발생연이므로 병아리 공급이 충분하다.

특히 작년 1,2월중 이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환우계의 증가 하반기 이후 계란사

예상된다.

수입측면을 보면 88년도 계란 불황으로 인해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88년 3/4분기 이후 병아리값의 회복과 더불어 수오즈가 10위

*** 산란종계에 있어서 국산종과 외국종의 입식동향(우기준)**

산지별 연도별	85	86	87	88	89
국산종	137,000	95,600	95,700	107,198	97,664
외국종	302,422	338,604	353,617	293,284	402,284
국산종/외국종	31/69	22/78	21/79	27/73	20/80

“
**89년도 산란종계 입식현황은 499,948수로
 88년에 비해 25%의 큰폭 증가를 보였으나
 예년의 수준에 비하면 10%정도 증가하여
 신규채란농가의 수요발생없는
 병아리 공급이 충분하리라 예상된다.**
 ”



입식비도 낮아지고 있다. 할양기에는 사료효율이 좋은 백색계가 호황기에는 특란시세, 질병에 강한 유색계를 선호하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국산종과 외국종의 점유비를 보면 20:80으로 국산종이 예년에 비해 점유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의 품종이 증가하고 수입물량의 증가로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육용종계는 과년도 GPS 입식수수에 비하면 국내 생산이 저조한 감을 주고 수입은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88년에 비해 8.2% 증가한 2,627,194수로 88년 물량이 감소하였던 점에 비추어볼때 다소 증가폭이 적은 감을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는 7% 감소하고 후반기는 25% 증가하여 금년도 병아리 공급 또한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부족현상이 지속되며 가격 또한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입은 전반기 PS종계 부족이 극심하여 다소 수입으로 대체한 감을 주며 2~3%의 점유를 차지하던 것이 89년에도 7% 수준까지 상승했다.

외국수입종의 순수국산종과 외

...10%의 공급 ... 농민이 농민을 농민으로

는 ... 10%의 공급 ... 농민이 농민을 농민으로

국수입종의 입식현황을 보면 36: 64로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도 P.S 입식은 전년도 GPS의 과잉 입추로 2/4분기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요 또한 상당히 높아 3/4분기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과잉입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통계자료로 본 90년도 부화업경기를 보면 산란부화업은 작년도와 같이 봄입추는 정상적인 입추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가을추는 입추 거부내지 입추 포화상태로 병아리 과잉생산으로 다소 불황이 예상된다. 더불어 상반기 보다 하반기 계란값이 다소 나뉘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아리값은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약보합세가 예상되며 계란값의 장기호황으로 입추 또한 살아나는 감을 보여 생산잠재력은 어느해보다 높기 때문에 부화장에서도 생산을 자제하고 농가에서도 무리한 입추는 피해 나가야 되겠다.

육계부화업은 작년도 호황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가 외식산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중량이 적은 닭의 수요증가로 병아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 있고 둘째, 육용종계의 생산성 저하 즉 산란율 10~15% 이상 하락 및 부화율이 30~40%까지 떨어져 병아리 생산 공급 차질 셋째, 병아리 값의 상승으로 인한 육계농장의 올인 올아웃 체계의 붕괴로 인한 질병발생으로 농장소모 증가 넷째, 불황으로 인한 육용종계의 생산감축으로 적정 PS 사육수수 유지로 인한 병아리 공급부족 등 병아리 호황 내지 육계값이 생산비를 웃돌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원인들이 금년에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육계가격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병아리 값의 폭등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육계업에 치명타를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첫째 불량병아리 발생으로 삼계탕용 병아리 수요를 잠식하여 육용병아리 수요를 감퇴시키고 둘째, PS의 과잉입추를 부채질하여 머지않은 시기에 실용병아리 과잉생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그 결과 육계값 불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

“ 불량병아리 공급과잉으로 육계불황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조속히 적정 병아리값 유지가 최선의 육계업 안정을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

년도 PS 입추수수가 많지 않고 생산성이 좋지 않아 병아리 공급 부족현상은 지속되면서 병아리값 호황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불량병아리 공급과잉으로 육계불황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조속히 적정 병아리값 유지가 최선의 육계업 안정을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개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에 최대의 경주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가에서 PS, C.C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부화업이 발을 붙이고 육계업도 안정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양지]**